

‘거문도’에 끼친 식민지시대의 영향

최길성 엮음 「일제시대 한 어촌의 문화변용」

좀처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하지 만, 우리 현대사의 개막이 일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동안 일제 식민시대 연구, 특히 일본 영향사 부분은 일본 학자들을 포함한 몇몇 외국학자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이뤄져왔을 뿐, 막상 국내연구는 ‘애국적’ 견지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아직까지도 이 시기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출간된 「일제시대 한 어촌의 문화변용」(아세아문화사)이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도 일제시대 영향사를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고증해냄으로써 ‘가치중립적’인 식민지시대 연구의 포문을 열었다는 데 있다.

최길성 교수(일본 中部大 국제문화학과)를 주축으로 한 ‘일본문화연구회’의 공동연구로 결실을 본 이 책은 일본에 의해 개척된 ‘거문도’라는 한 어촌의 현지조사와 그 배경이 되는 총독부 정책의 연구분석을 통해 식민지시대 일본의 영향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식민지 정책 초기에는 토지 법률조사를 실시해 수탈하는 武斷정책을 썼다가 말기에 이르러서는 舊慣 풍속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해 이른바 ‘문화정책’을 폈다. 이 책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문화정책의 영향으로서, 그 대표적 예로 한 도서 지역을 선정, 현지조사를 통해 1940년대 당시 민속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이 지역의 문화변용 양상을 보여준다.

현지조사와 총독부 자료분석 토대로 해

표본조사지로 삼은 거문도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전라남도에 위치한 어촌지역이다. 거문도, 서도, 동도의 세 섬으로 이뤄진 이 도서지역은 식민시대 일본인들이 집단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발전한 전형적인 개척어촌이다. 아직도 섬 곳곳에 신사터와 일본풍의 이층집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본 어촌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식민시대 어업의 변성으로 식당과 유곽이 들어서고 연극 영화가 공연되는 등 당시 어느 섬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듯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離島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점은 이 지역이 식민시대 문화변용의 적절한 표본지역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당시 3개의 섬 중에서 거문도에 속해 있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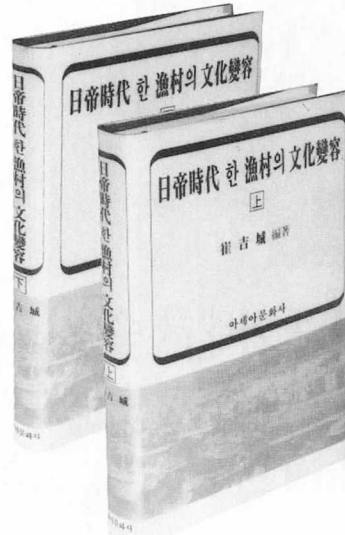
식민지라는 수동적 상황에서도
 생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문도 특유의 문화 변용양태를
 광범위한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실증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책은 ‘가치중립적’ 식민지시대
 연구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문리만이 일본문화가 성황하고, 주변의 다른 섬은 반일 저항운동으로 민중운동의 한 표본지로 주목된다는 사실 또한 이 지역에서 식민시대 어촌사회의 일본의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88년부터 91년에 걸쳐 실시된 현지조사에 따르면, 거문리는 원래 무인도였기 때문에 일본인이 정착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애초 섬의 중심지였던 서도리에는 지주를 비롯한 양반세가 강해 일본인들과 별로 접촉하지 않았다. 결국 면사무소를 거문리로 옮기는 등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거문리로 옮겨가면서 경제적으로 월등한 일본인들의 어업에 한국인들이 예속돼가는 현상이 가속화됐다. 이러한 경제적 예속은 일본인이 주축이 된 부인회, 청년회, 어업조합 등의 조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교교육 이외에는 음력설 등이 고수되는 등 일본문화의 영향을 의외로 적게 받아, 해방후 어업 및 생업에 관계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통문화가 복원되는 현상을 보였다.

일본문화 수용에서 보여준 ‘이울배반성’

최길성 교수는 이같은 거문도 특유의 일본 문화 수용양태를 육지에 대한 강한 소외감을 느끼는 반면 자체 아이덴티티 형성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문도의 지리적 특성과 연결해 설명한다. 즉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치안유지나 식량조달이 어려운 육지의존적 관계가 거문도 주민들에게 외부에 대한 이울배반적 태도를 갖게 했다는 것. 일본인과 일본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보여준 이 지역 주민들의 이중적 태도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일제 이전이나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후에도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정부에 ‘객관적’ 시각을 갖게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16편의 논문은 식민지라는 수동적 상황에서도 생업과 관련된 탈이념적

부분을 제외하고는 문화수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이같은 거문도 특유의 문화변용 양태를 자연지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민속, 풍속, 제의, 제례, 사회조직 등 광범위한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실증해내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자료편에서는 일본 무단정치의 실상을 읽을 수 있는 거문도 이주 일본인이 남긴 재향군인회 활동기록 「거문도分會史」를 비롯해 면사무소 소장의 「거문도연혁지」 「군사후원사업개요」 「연도별 어종별 위판 현황」, 그리고 현지조사에서 채록한 거문도와 경상도 지역 생존 노인들의 식민지시대 체험담 등이 책의 토대가 되는 기본자료들을 모아 수록했다.

자료적 가치와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일본 도요다재단의 연구비 지원 등 많은 부분 일본에 빚지고 있다는 사실은 내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정소연 기자

우리 옛건축의 통사적 체계화

장경호 지음 「한국의 전통건축」



우리나라의 전통건축문화는 중국계 건축 문화의 영향뿐 아니라 해양문화권에 속하는 남방문화의 영향도 적잖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대담하지도 왜소하지도 않은 우리의 건축문화는 이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나름의 여과과정을 거쳐 독특한 양식으로 변용시킴으로써 중용의 미덕이라 일컬어지는 우리 민족성의 일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상재된 「한국의 전통건축」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우리나라 전통건축의 역사와 시대별 특징을 이제까지 축적된 국내의 자료를 토대로 실증한 방대한 자료집이자 연구서로 주목할 만하다. 문화재연구소 장경호씨가 그간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이방면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해 통사체계의 온전한 전통건축사를 완성해낸 것.

저자에 따르면, 우리 전통건축이 지닌 독창성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규범적 양식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그렇다고 자유분방한 기법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정제된 통일성과 자연과의 조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어떤 전형

적인 양식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자료적 특성으로 많은 부분이 유실된 전통 목구조 형식의 계보를 새롭게 추적, 분류하고 궁궐과 사찰건축의 발달사를 체계화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나라 민가의 평면구성의 발전상을 부엌과 온돌 구조와 관련하여 분석하면서 ‘구들’의 시원을 선사시대 움막집의 ‘爐’에 두고 살펴보는 등 저자 나름의 서술방식과 연구시각으로 기존 학계의 각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문예출판사 / B5 / 550면 / 28,000원